

인간의 보편적인 삶 속에 깃든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는 자비의 실천과 진리의 지각으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이는 결코 동일 수 없다. 부처님 가르침은 그 내용을 배우는데 머무는 관념이 아니라 인간과 우주와 참모습을 깨우치는 실천이기 때문이다.

중생이 도달해야 할 가장 큰 진리로 가는 길, 그 멀고 험한 길을 묵묵히 걸으며 이웃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 정신까지 포용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불교 실천가들을 소개한다. 이들이 펼치는 보살행을 면밀히 살펴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불자의 참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 주)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 인권·소비·교육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태국의 술라크 시바라크사.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1)

태 술라크 시바라크사

"이 시대 불교는 사회학·심리학·인류학 등의 사회과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불교는 이러한 사회과학의 원칙들을 열린마음으로 수용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상적 배경과 실천적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1994년 여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된 불교평화연맹(Buddhist Peace Fellowship)의 학회학술대회에 참가한 술라크 시바라크사(Sulak Sivaraksa, 62)는 동시대 불교의 실천 방향을 이렇게 지

과 사회적 능력을 개발하고 타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단체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INEB는 초창기의 활동에 비해 비폭력·인권·환경·여성 등과 같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능동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단체의 강화된 역량을 통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세계불교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작년 10월 태국 매홍손(Mae Hong Son)에서 개최된 INEB 연례대회에서 술라크 시바라크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각 단체간의 긴밀한 공

빈민구제·정신교육 '30년 헌신'

적했다. 지난 73년부터 30여년간 통렬한 사회·정치비판으로 반정부 학생운동에 불을 당겨 태국의 군사정권을 전복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던 술라크 시바라크사. 그는 육신이 넘어선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태국의 사회개혁을 위해 도시·농촌 빈민구제, 정신적이고 영적인 교육을 통해 서구식 소비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한 교육정신운동 등 국내 사회 개혁사업에 꾸준히 헌신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를 결성해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세계 참여불교의 연대를 강화시키고 있다. 시바라크사는 이와같이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불교사회운동가로서 태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다. 때문에 93년과 94년에는 노벨평화상 수상 후보자로 지목되기도 했고 작년 12월에는 인권운동을 전개한 공로로 인종발아스웨덴 의회로부터 제2의 노벨상으로 알려진 '정의로운 생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활동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제참여불교네트워크(International Network Engaged Buddhism, 이하 'INEB')와 교육정신운동(Spirit in Education Movement, 이하 'SEM')은 그가 사회문제에 대해 불교적 대안과 실천적 방법론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INEB는 불교의 수행관을 통해 복지·평화 등과 같은 전인류의 관심사를 해결하고자 1989년 태국과 일본을 비롯해 11개국 36명이 대회를 개최해 결성했다. 초창기 이 단체는 불자 개개인의 수행

참여불교망 구축 세계불교 연대 강화 서구식 소비주의의 탈피 사회개혁 주도 인권운동 앞장 '정의로운 생애상' 수상 "자유는 개개인의 불성인식서 비롯"

조체제 속에서 사회참여불교운동을 면밀히 진행시키기 위한 발판 마련과 'N'의 자본기반으로서 INEB의 역할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 INEB는 국제적 통신망인 인터넷에서 평화·인권·사회정의 등의 실현을 위해 조직된 평화네트워크(PeaceNet), 여성문제를 다루는 여성네트워크(Women'sNet)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국제적인 입력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바라크사는 또한 태국의 사회의식을 개혁하기 위해 '교육정신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그는 "학교는 지식을 전수할 뿐 도덕이나 영혼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머리와 가슴의 조화가 결핍됐다"라며 태국의 교육 실정을 비판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개혁의 토양을 마련하고자 1995년부터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SEM은 피교육자에게 생애학·생사(生死)·소비주의 등의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신적이며 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교육운동체다. 현재 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험되고 있는 이 교육을 통해 시바라크사는 태국에 광범해 있는 '서구식 소비주의'에서 탈피하겠다는 당찬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는 "태국에 만연해 있는 소비주의는 마치 '나는 구입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민의식은 '구매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 가치도 없다'라는 등식까지도 성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태국은 현재까지 광활한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의 혜택은 전체 인구의 20%에 불과한 상류층에 국한돼 있고 중산층과 대부분의 빈곤층에는 아무 이익도 돌아가지 않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이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시바라크사는 인간의 욕구를 자각해 필요 이상의 것을 갈구하게 만드는 '소비주의'를 일종의 신종 사교(邪教)로까지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불교는 개인주의가 발달한 사회보다는 공동체적인 사회 건설과 '탐욕'과 '소비주의'에서 벗어난 경제원리

- 약 력
- 1933 방콕(태국)에서 출생. 영국에서 법학 수학.
 - 1963-68 태국내 대학생회(Sapha Kafa) 주재. 태국 젊은이의 정신적 지도자로 부상.
 - 1970 Visha Puja지 편집장 역임. 불교적 시각 통해 사회 비판.
 - 1983 Prdi Banomyong 재단 설립.
 - 1995 '정의로운 생애상' 수상
- 저서로는 '사회참여불교(1988)', '태국의 위기(1910)', '평화의 씨앗(1992)' 등이 있다.

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불교적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바라크사는 인권과 비폭력운동에도 남다른 관심을 쏟으며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권이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주장한 시바라크사는 "미국은 티베트인의 독립 열기를 높이 평가. 중국의 억압에 유감을 표시하곤 하지만 티베트인의 권리보다 동중국지역을 더 중시한다"(뉴스위크지 96년1월31일자)며 인권에 대한 서구의 위선적인 자세를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95년 7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인권운동가인 빈센트 하딩(마틴 루터 킹 재단 이사장, 美) 박사와 '사랑'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시바라크사는 "자유란 개개인의 불성의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이러한 불성은 탐·진·치 삼독(三毒)에서 벗어나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오종욱 기자

나의 수행일기

6·25 동란의 와중인 1952년 9월 첫 일요일 아침,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전원은 영내 교회로 인솔되었다. '신입생 환영 예배' 참석을 위해서다. 바로 이것이 군에서의 불교 신앙활동의 시작이었다.

다음주 일요일에도 신입생은 동원되었다. 신입생이어서 나는 상급생 지시에 따르는 것이 '신앙의 자유'가 엄연히 보장되어 있을뿐 아니라 교교시절부터 제주 관을 사 포교당에서 불교학생 운동을 해왔던 터이기 때문에 그대로 승복할 수가 없었다.

상급생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던 어느날 1학년 생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상급생이 '불교신자 손 들어!'라고 말했다. 나는 귀를 의심하면서 상급생을 쳐다보았다. "불교신자 없나?"라는 재촉에 "예, 있습니다"라고 벌떡 일어났다. 시선이 내게로 집중되는 가운데 일명령이 잇달아 떨어졌다.

상급생은 "너희는 다음 주부터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특혜령을 내렸다. 순간 좌옹이 웅성대며 '나도 손들길...' 하

유상종 (대구전도대 교수)



요일 오후 3시부터의 활동시간에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교실에서 법문을 청하였다. 그후 입관해서도 나는 군불교운동에 매진했다. 소대장 1년을 마친 중위시절, 육사 생도대 훈육관으로 동기생 5명이 선발되어 부임했다. 불교부 고문장교로서 지도를 맡아 써를활동의 내실화와 대신도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해·공군사관학교에 불교부를 창설하는데 일조함으로써 5·16 직후에는 3사관 학교 체제가 끝나고 조계사에서 첫 합동법회를 열기도 했다. 호국불교의 맥을 이은 한 젊은 장교로서 희망의 후예라는 사명감으로 포교활동에 몸을 던졌던 것은 참으로 내 생애에 보람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에 4·19 이후 아무 거리낌 없이

생도시절부터 전역까지 '나는 불자'

육사 초대 불교부장...軍·청년불교운동 앞장

는 아쉬운 목소리가 들렸다. 당시의 군 권제는 미국식을 따르고 있어 군내 불교활동은 물론 의출도 허락되지 않고 있었다.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외출이 처음으로 허락되던 어느 일요일 아침, 불연으로 맺어진 개척자 8명은 사관학교에서 가까운 진해 시내의 '묘법사'로 가 참배하고는 주지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우리는 부처님께 감사드리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참석했다.

1954년 육사는 서울 태릉으로 옮겨갔다. 3학년으로 진학하였으나, 외박은 허락되지 않았다. 다만 외출시에는 '조계사'를 찾았다. 당시 '태고사' 시절로 불교정화가 한창 때여서 대웅전 앞에는 연일 승려와 신도들의 길가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일행을 만나주셨던 청담 총무원장스님의 자상한 배려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6개월후 2학기가 되자 종교위원회 안에 불교부, 기독교부, 천주교부가 각각 구성되었다. 당시 생도대상 이용 장군의 용단과 YMCA 회장직을 맡고 있던 박세직 동기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초대 불교부장 생도로 임명된 나는 매주 수



대한불교청년회 재건을 위해 대각회 간부이던 이호식, 이진호법우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었고 약 13년간을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우리말 팔만대장경)을 여야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을 통해 오늘의 역경사업을 전개하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동국대 박동

기법우의 헌신적 노력으로 전국적 조직망을 구성할 수 있었다.

1971년 1군사령부에서 군불교장교회를 결성, 뒤이어 원주역 바로 앞에 군법당 법웅사(法雄寺)를 건립하였다. 청담 종정스님께서 이름을 지으시고 친필 간판을 손수 달아주셨다. 군 영내 아닌 시내에 처음으로 법당이 건립된 이 불사는 종정스님의 마지막 공적행사였다.

돌이켜보면 나는 사관생도 시절부터 현역 복무 32년을 마치고 예비역에 이르기까지 전법 구도의 외길을 뛰어왔다. 나는 앞으로 부처님길을 떠나지 않고 청년의 마음으로 포교와 수행에 매진할 것이다.

전환기에 접어들어 이 시점에서 보다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불교중흥과 민족번영을 위해 매진해왔다는 심정도 아직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5 바라밀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시시오. 고등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금강경독송회 엮음

1부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마스한 이야기기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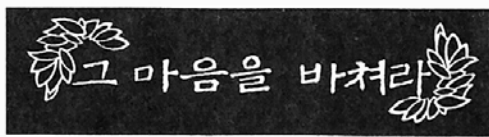
2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시 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미음 아닌가.



신국판 267쪽/값 7,500원



-백 선생님 법문에-